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마지막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내 거룩한 신에서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땅이 바다를 덮는 물과 같이 여호와와 그의 자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이라” (이사야11:6, 9)

글쓴이

Bob Thiel 박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Bob Thiel 박사

Copyright ©2016/2017/2018/2019/2022/2025/2026 by Nazarene Books.
Edition 3.0. Booklet produced for the *Continuing* Church of God and
Successors, a corporation sole. P.O. Box 109, Grover Beach, California,
93483, U.S.A. ISBN: 978-1-63660-113-7.

인류는 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와 마지막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과 그들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의 강조점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 자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실제로
세워질 어떤 종류의 왕국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으시겠습니까?

왕국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초기 기독교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표지 사진은 버딘 프린팅 앤 그래픽스(Burdine Printing and Graphics)가 연출한,
늑대와 함께 누워 있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뒷표지 사진은 2013년 Bob Thiel
박사가 촬영한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 건물 일부입니다.

목차

1. 인류에게 해결책이 있을까?	4쪽
2.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11쪽
3.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졌는가?	27쪽
4.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는가?	35쪽
5. 신약성경 외의 자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48쪽
6. 그리스-로마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76쪽
7.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87쪽
연락처 정보	98쪽

참고: 이 책은 영어판을 인공지능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일부 표현이 원문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원문에 가깝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영어판은 www.ccog.org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류에게 해결책이 있을까?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질환은 많은 의사들을 걱정하게 합니다. 주요 산업 도시들의 대기 오염은 건강에 해로울 정도입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 의제

2015년 9월 25일,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 연설에 이어, 유엔(UN) 회원국 193개국은 때때로 ‘새로운 보편적 의제’라고도 불리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한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한다

목표 3.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목표 5.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물과 위생 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목표 7.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목표 8.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목표 11. 도시와 인간 정착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든다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보장한다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한다

목표 1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역전시키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다

목표 1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기관을 구축한다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이 의제는 2030년까지 완전히 이행될 예정이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의제는 규제, 교육, 국제 및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의제의 많은 목표는 선하지만, 일부 방법과 목표는 악합니다(참조: 창세기 3:5). 또한 이 의제는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라우다토 시(Laudato Si)』 와도 일치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역시 이 2030 의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새로운 보편 의제”는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가톨릭 의제”라고도 불릴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의제의 채택을 “중요한 희망의 징표”라고 칭했다.

유엔 협정의 후속 조치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공식 명칭은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이 국제 협정을 칭찬하며 각국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신중하게 따르고, 끊임없이 커지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구체적인 환경 목표와 재정적 약속을 담은 파리 협정에 합의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에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서를 작성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된 파리 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을 협정에서 탈퇴시켰다. 이는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이 유럽 및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가 그가 제시한 기후 관련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거나, 굶주리거나, 빈곤에 시달리거나, 생존 위협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유엔의 ‘2030 의제’ 및/또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엔의 실적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른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유엔의 회원국은 51개국이었으나, 현재는 193개국입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은 아니더라도 수백 건의 분쟁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할 만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이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국제 협력과, 교황 레오 14세 및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장려하고자 하는 종교 간 및 에큐메니컬 의제가 결합된다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이를 실현해 온 실적은 좋지 않았다. 유엔 창설 이후 수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난민이 되었거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수십 년 전, 유엔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8개의 “개발 목표”가 있었지만, 유엔 자체의 평가에 따르면 이 목표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른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다. 일부는 낙관적인 반면, 일부는 이를 유토피아적 환상으로 간주한다.

유토피아에 관해 말하자면, 2016년 5월 6일 당시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교회가 유럽 대륙이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유럽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황의 꿈은 결국 악몽으로 드러날 것입니다(참조: 요한계시록 18장).

일부 협력과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정부, 법률, 사회 조건이 완벽한 상상의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²³ 오 주여,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걷는 사람이 자기 발걸음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10:23, 별도 표기 없는 한 전체 NKJV)

성경은 국제적 협력이 실패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6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으며,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3:16-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때로는 종교까지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엔이나 바티칸이 세운 목표들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것이며(그리고 많은 목표들이 선한 것들입니다), 물론 몇 가지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마도 대규모 분쟁을 겪은 후에, 일종의 국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확정될 것입니다(다니엘 9:27).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더 평화롭고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릇되이 믿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국제적인 ‘유토피아적 진보’(참조: 에스겔 13:10)와 다양한 표적과 기적(데살로니가후서 2:9-12)에 현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든(데살로니가전서 5:3; 이사야 59:8), 그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다니엘 9:27; 11:31-44).

예수님(요한복음 15:5; 마태복음 24:21-22 참조)을 제외하고 인류가 이 ‘현재의 악한 시대’에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 복음입니다(갈라디아서 1:3-10).

인류만으로는 진정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떤 형태의 유토피아도 가능한 것일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를,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유토피아 사회가 인간의 정부를 대체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다니엘 2:44; 요한계시록 11:15; 19:1-21).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4-15)

‘복음(*gospel*)’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uangel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영어 단어 “kingdom”은 NKJV 성경에서 약 149회, *두에아-랭스(Douay-Rheims) 성경*에서 151회 언급됩니다. 이 단어는 왕권의 통치나 영역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basileia*’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모두 왕이 있으며(요한계시록 17:14),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고(요한계시록 11:15), 법규를 갖추고(이사야 2:3-4; 30:9), 백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누가복음 13:29).

다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 가르침입니다:

23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4:23)

마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³⁵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9:35)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³³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3)

누가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⁴³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4:43)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¹⁰ 사도들이 돌아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새다라는 마을에 속한 한적한 곳으로 따로 물러가셨습니다. ¹¹ 그러나 무리가 이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10-1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³³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³¹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² 작은 양 떼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31-32)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며 그분의 재림과 나라를 고대함으로써 이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인류가 왜 그토록 고통이 많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나라가 소수의 양 떼에게 주어질 것임을 주목하십시오(참조: 로마서 11:5). 참된 소수의 양 떼의 일원이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10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9-10)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1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2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1-2)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임재만으로는 왕국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땅에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12:28)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지, 마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이 아닙니다:

⁴⁷ 만일 네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다... (마가복음 9:47)

²³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²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²⁵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마가복음 10:23-25)

²⁵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겠노라.” (마가복음 14:25)

⁴³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다가와 ... (마가복음 15:43)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현세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³⁶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서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왕으로서 재림하신 후에야 왕국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³¹ “인자가 그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분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³²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며,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그들을 서로 갈라 놓으실 것이다. ³³ 그리고 그분은 양들을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두실 것이다. ³⁴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5:31-34)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그 나라가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유토피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로마서 11:25) 오지 않을 것이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²⁶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²⁷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는데,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그 자신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²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먼저 잎이

나고, 그다음 이삭이 나며, 그 후에 이삭에 알곡이 가득 차게 된다. ²⁹ 그러나 곡식이 익으면 그는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26-29)

¹⁸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유할까? ¹⁹ 그것은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텃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²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²¹ 그것은 한 여자가 가져다가 밀가루 세 되에 숨겨 두었다가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누가복음 13:18-21)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결국 커져서 무한한 우주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²⁹ 그들은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누가복음 13:29)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나 특정 민족 집단으로만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과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20-21은 어떤 이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¹⁵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4:15)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 둔 무언가가 아닙니다. 비록 누가복음 17:21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나 오해로 인해 달리 암시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누가복음 17:20-21의 AFV 번역본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²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 ²¹ 또한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 있다.” (누가복음 17:20-21, AFV; NASB 및 ESV 번역본도 참조)

예수님께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곧 조직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마음이나 가슴 속의 감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통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교회에 대해 묻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 시작될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름다운 감정의 한 형태에 대해 묻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다면 — ‘그 교회’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말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결론은 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개신교 번역본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NKJV/KJV)라고 번역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신 예루살렘 성경』조차도 이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올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으며, 그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혹은 오늘날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교회와 같은) 유대인만을 위한 지역적이거나 제한된 왕국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보고 “바로 여기다” 또는 “저기가 바로 그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이는 그분이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요한복음 18:36-37). 성경에서는 종종 “왕”과 “왕국”이라는 용어를 서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예: 다니엘서 7:17-18, 23).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곁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요한복음 19:21). 그분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그분을 거부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19).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다음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그분의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모팻 번역본 사용):

2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의 하루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도 헛되이 그날을 기다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23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나가거나 그들을 쫓아가지 마라. 24 하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인자도 그 날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나 그는 먼저 큰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 버림을 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17:22-25, 모팻)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27-31에서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시며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그들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참조, 사도행전 1:11).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요한계시록 11:15), 그분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19)!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3:13-14).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인간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곳입니다 — 의인들의 부활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른 조상들조차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히브리서 11:13-40 참조).

제자들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¹¹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11)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된 사건들을 열거하시고(누가복음 21:8-28),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²⁹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³⁰ 그것들이 이미 싹을 틔우면, 너희는 보고 스스로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³¹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누가복음 21:29-3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언된 사건들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면서 예언된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21:36; 마가복음 13:33-37).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언과 연관된 세계적 사건들을 지켜보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성취될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¹⁵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어 왔노라. ¹⁶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이것을 먹지 못하리라.” ¹⁷ 그분은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어 마시라. ¹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누가복음 22:15-18)

³⁹ 그러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악인 중 한 사람이 그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⁴⁰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동료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너도 그와 함께 정죄를 받았으니.⁴¹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악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 그가 예수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⁴³ 그러나 예수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39-43, Aramaic in Plain English)

마가와 누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⁴³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다가와 ... (마가복음 15:43)

⁵¹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3:51)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고린도전서 15:50-55)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³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⁴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⁵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년왕국 이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³ 또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 계심을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와 마지막 설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사도 요한에게 지상에 임할 천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⁴ 나는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이 베인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이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다.
(요한계시록 20:4)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참조: 요한계시록 5:10, 11:15), 천년 왕국이 지상에 세워져 세상의 정부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진다.” (마가복음 4:11)

오늘날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상당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에게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www.ccog.org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을 만드셨는가?』라는 제목의 책도 참조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이 (곧) ‘증거’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14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없이 인류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참된 기독교 교회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Continuing Church of God)’가 힘쓰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소책자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다수가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활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난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13-14)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생명으로 이끍니다!

대부분의 자칭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지만, 세속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바라고 종종 이해해 왔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를 기대하셨습니다(누가복음 9:2, 60). 장차 올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며, 이 시대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평화로 이끍니다(시편 119:165, 172; 에베소서 2:15).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은 구약 성경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3.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졌는가?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와 마지막 설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마가복음 1:14-15; 사도행전 1:3).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경전에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40 네 번째 왕국은 철처럼 강할 것이니,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듯이, 그 왕국도 으스러뜨리는 철과 같이 다른 모든 왕국을 부수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41 네가 발과 발가락을 보았는데, 일부는 도공의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었으니, 그 왕국은 분열될 것이나, 네가 철이 도공의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듯이, 그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다. 42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던 것처럼, 그 왕국도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연약할 것이다. 43 네가 흙과 섞인 철을 보았듯이, 그들은 사람의 자손과 섞이겠지만, 철이 흙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붙지 않을 것이다. 44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삼켜 버릴 것이며,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다니엘 2:40-44)

¹⁸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그 왕국을 받아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다니엘 7:18)

²¹ “내가 지켜보니,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있었으나, ²² 영원하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 7:21-22)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속될 때가 올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¹² “네가 본 열 뿔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한 열 왕들이나, 그들은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¹³ 이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자기들의 권세와 권능을 그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¹⁴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충성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12-14)

따라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말세에 열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왕국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멸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단계, 즉 천년왕국으로 알려진 천 년간의 통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¹ 이새의 즐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리라. ² 여호와와 영이 그 위에 머무르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³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시리라. ⁴ 그러나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며, 그 입술의 숨결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⁵ 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고, 신실함은 그 허리의 띠가 되리라.

⁶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⁷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니라. ⁸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 옆에서 놀 것이며, 젖을 떼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⁹ 내 거룩한 산 전체에서 해치거나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는 땅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여호와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¹⁰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며, 백성에게 깃발이 되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찾으리니,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우리라.” (이사야 11:1-10)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첫 번째 단계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 시기가 물리적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성스러운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 요한계시록 21장), 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어가며 이 단계의 물리적 측면을 확증했습니다:

¹¹ 그 날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손을 내미사, 앗수르와 이집트, 바드로스와 구스, 엘람과 시날,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은 자, 곧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¹² 그분은 열방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에서 흩어진 유다의 자손들을 한데 모으시리라. ¹³ 또한 에브라임의 시기심이 사라지고, 유다의 원수들이 끊어지리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¹⁴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해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날아내려가서, 함께 동방의 백성을 약탈할 것이며, 에돔과 모압을 점령할 것이요, 암몬 백성은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¹⁵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리니, 그의 강력한 바람으로 강 위에 주먹을 휘두르시며, 그것을 일곱 갈래로 나누시고, 사람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¹⁶ 앗수르에서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한 대로가

열리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을 때와
같으리라. (이사야 11:11-16)

이사야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²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이 있는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³ 많은 백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라. ⁴ 그분께서
열국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은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 ¹¹
사람의 거만한 눈빛은 낮아지고, 사람의 교만은 굽혀지며, 그
날에 오직 주님만이 높이 들리시리라. (이사야 2:2-4,11)

따라서 이는 지상에 평화가 깃든 유토피아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시편 90:4; 92:1; 이사야 2:11; 호세아 6:2)에
근거하여, 유대교 탈무드는 이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바빌로니아 탈무드: 산헤드린 편 97a면).

이사야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⁶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⁷ 그 통치와 평화의 번영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서, 그 때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굳건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 체계를 갖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매년 12월이 되면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 이상으로 한 예언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왕국의 왕이 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와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길이며(마태복음 22:37-40; 요한복음 15:10),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에 근거하여 다스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기초로 할 것입니다.

시편과 그 밖의 기록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분은 다니엘과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대환난 기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유대인뿐만 아니라)가 천년 왕국에서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¹⁷ 그러므로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¹⁸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가증한 것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제거할 것이다.¹⁹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두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리니,²⁰ 이는 그들이 내 율례를 따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실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²¹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과 혐오스러운 것을 좇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스겔 11:17-21)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가증한 것을 먹는 것을 그칠 것이다(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주목하십시오:

²⁷ 세상의 모든 끝이 이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열국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경배하리라. ²⁸ 이는 왕국이 주께 속한 것이요, 주께서 열국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 (시편 22:27-28)

⁶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서 계시니,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시편 45:6)

¹ 오,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²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³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 가운데 그분의 기이한 일을 알리라. (시편 96:1-3; 또한 역대기상 16:23-24 참조)

¹⁰ 오 주여, 주의 모든 피조물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축복하리이다. ¹¹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전하리니, ¹² 이는 사람의 아들들(인생들)로 하여금 주의 위대한 행적과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¹³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로 지속되리이다. (시편 145:10-13)

구약성경의 여러 저자들도 왕국의 여러 측면에 대해 기록했습니다(예: 에스겔 20:33; 오바댜 21; 미가 4: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당대의 청중들은 그 기본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4.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치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좋은 소식인 양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⁸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논증하고 설득하였다. (사도행전 19:8)

²⁵ 참으로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니던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20:25)

²³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낱자를 정해 주자, 많은 사람이 그가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엄숙히 증언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 설득하였다. ... ³¹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모든 담대함으로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28:23, 31)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비록 예수님이 그 핵심 부분이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는 별도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불렀으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⁹ ...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 ¹²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9,12)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로마서 1:16).
예수님의 ‘좋은 소식’, 곧 그분이 가르치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복음이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복음만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⁶ ...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
주시기를, ⁷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시기를, ⁸ 불타는 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기를. ⁹ 이들은 주님의 면전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벌을 받을 것이며, ¹⁰ 그날 주님께서서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경외를 받으실 때, 이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전한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6-10)

신약성경은 왕국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²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8)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왕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이는 부활 후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50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모두가 잠들지는 아니하겠으나,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52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50-52)

1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분은 나타나실 때와 그분의 나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니라.

(디모데후서 4:1)

바울은 그 사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실 것임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사람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니,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왔기 때문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리라. ²⁴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없애실 때이다. ²⁵ 그분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20-25)

바울은 또한 불의한 자들(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⁹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소돔의 죄를 짓는 자, ¹⁰ 도둑이나 탐욕스러운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9-10)

¹⁹ 육신의 행실은 분명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움, 음탕함, ²⁰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이단, ²¹ 시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 둡니다. (갈라디아서 5:19-21)

⁵ 너희는 이것을 아노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5)

하나님께서서는 기준을 두셨으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²⁹ ...베드로와 사도들이 ...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³²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그분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사도행전 5:29, 32, AFV)

⁵ 그리스도께서는 ...⁸ 아들이셨으나, 겪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⁹ 그리고 온전해지신 후,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5, 8-9)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해답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른 길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³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⁴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으니,⁵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⁶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떠나, 이토록 빨리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놀랍습니다.⁷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⁸ 설령 우리나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⁹ 우리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3-9)

³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노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함에서 타락할까 염려하노라. 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그것을 참아 줄 수도 있겠구나! (고린도후서 11:3-4)

그 “다른” 복음, 곧 “다른 종류의” 복음, 실은 거짓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복음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복음이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의 길에 따라 살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마태복음 7:21-23 참조). 이는 이기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 6,000년 전,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거짓 복음에 빠지게 했습니다(창세기 3장)—그 이후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믿으며,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그분의 이름은 종종 다양한 거짓 복음에 붙여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거짓 복음은 본질적으로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영지주의적·신비주의적 혼합물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포함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이 행하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제7일 안식일과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지도자 중 한 명이 시몬 마술사였는데,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8:18-21).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음을 보여줍니다:

⁵ 그 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 ¹²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하자 그들은 빌립을 믿었다 ... (사도행전 8:5,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²⁴ 예수께서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²⁵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²⁶ 이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²⁷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가복음 18:24-27)

²²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14:22)

³ 형제들아, 우리는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리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자라고 너희 모두의 사랑이 서로에게 넘쳐흐르기 때문이라, ⁴ 그리하여 우리가 너희가 겪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들 앞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⁵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의로우시며, ⁷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3-7)

이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이 시대에 그 일부가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된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마태복음 22:1-14; 요한복음 6:44; 히브리서 6:4-6). 다른 이들은 나중에 부름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그릇된 자들은 깨달음을 얻고, 불평하던 자들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사야 29:24).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순종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¹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힘쓰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¹¹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너희에게 풍성히 열릴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10-11)

¹⁷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왔으니,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끝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17)

성경의 마지막 책들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한일서 4:8, 16)고 가르치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요한복음 1:1, 14)—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신 왕이 계실 것이며, 그분의 법은 미움이 아닌 사랑을 뒷받침할 것이다(참조: 요한계시록 22:14-15).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천사를 보내실 것(요한계시록 14:6-7)이며, 그 후 또 다른 천사를 보내 바빌론이 겉으로는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것임을 알리실 것(요한계시록 14:8-9)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세상이 이전에 증거로 받아들였던 복음을 초자연적으로 확증해 줄 것이며, 말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큰 무리”가 모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요한계시록 7:9-14). 일어나고 무너질 마지막

바빌론의 권세(참조: 요한계시록 18:1-18)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단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15 그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라!” (요한계시록 11:15)

예수님께서 그 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두 가지 칭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16 그분의 겔옷과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9:16)

그러나 다스리실 분은 예수님뿐일까요?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4 또 내가 보매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 후에 내가 보았더니,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짐승이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더라 . . . 6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를 갖지 못하며,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4, 6)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요한계시록 11:15),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언급된 첫 번째로 부활한 성도들과의 통치는 오직 천 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단계, 즉 최종적이고 더 영적인 단계와 대조되는 물리적이며 천년기적인 단계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 단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단계 사이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 천 년이 차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며 8 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을 모아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다. ... 11 그 때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을 위한 자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12 또 내가 보니, 크고 작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졌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바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13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14 그러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15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졌다. (요한계시록 20:7-8, 11-15)

요한계시록은 천년 왕국 통치와, 회개와 하나님의 길을 영원히 거부한 자들의 둘째 죽음이 지난 후에, 왕국의 또 다른 단계가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¹ 그 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도 더 이상 없었다. ² 그 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³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울음도 없을 것이며,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1-4)

¹ 또 그가 내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² 그 거리의 한가운데와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며, 각 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고치기 위함이었다. ³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⁴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 ⁵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므로 등불이나 해의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5)

천 년이 지난 후 시작되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하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늘에서 준비된 거룩한 도시는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마태복음 5:5),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7). 그 위에 세워질 거룩한 성을 포함한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⁷ 그 통치와 평화의 번영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이사야 9:7)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후에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것이므로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⁹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¹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9-10)

그것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적으로 더 나은 영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5. 신약성경 외의 자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트 어만 교수가 진행한 강연에서, 그는 오늘날 대부분의 자칭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그분의 초기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강조했습니다. 비록 어만 박사의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Continuing Church of God)’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믿었던 것임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신약성경 이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저작 및 설교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기독교 설교”로 알려진 문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Holmes M.W. 『고대 기독교 설교』. 『사도 시대 교부들: 그리스어 원문과 영어 번역』, 제2판. 베이커 북스, 그랜드래피즈, 2004, 102쪽). 이 『고대 기독교 설교』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 또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찮고 덧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은 위대하고 경이롭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과 영생입니다.

위의 진술은 왕국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고대 설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6:9 이제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조차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례를 순결하고 흠 없이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9:6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합시다. 11:7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귀로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약속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실 날을 알지 못하므로, 사랑과 의로움 가운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시다. 12:6 그는 “내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진술들은 올바른 삶을 통한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야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설교가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현재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이 설교가 실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 그리스어 실력이 부족하여 더 확실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세기 교회 지도자들과 왕국의 복음

2세기 초, 요한의 제자이자 폴리카르포의 친구였으며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성인으로 여기는 파피아스가 천년 왕국을 가르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스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기록했습니다.

... 죽은 자의 부활 이후 천년기가 도래할 것이며, 그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확립될 것이다. (파피아스의 단편, VI.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 제3권, xxxix, 12 참조)

파피아스는 이 시기가 풍요로움이 넘치는 때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그는] 밀 한 알이 만

이삭을 맺을 것이며, 각 이삭에는 만 알의 곡식이 들어 있고, 각 알은 10파운드의 맑고 순수하며 고운 밀가루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과와 씨앗, 풀도 비슷한 비율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때 모든 동물은 오직 땅이 생산해 내는 것만을

먹고 살게 되어 온화하고 조화롭게 변하며, 인간에게 완벽하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의 제자이자 폴리카르포의 친구였던 고대인 파피아스가 그의 저서 제4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서면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는 총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파피아스의 단편, IV)

신약성경 이후의 문서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클레멘트 1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2:1-3 사도들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따라서 둘 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하여 사명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전히 확신을 얻었으며, 성령의 완전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였으며, 원래의 사도들 중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다. 서기 120~135년경의 폴리카르포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가난한 자들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폴리카르포,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 제2장. 알렉산더 로버츠와 제임스 도널드슨이 편집한 『니케아 공의회 이전 교부들』 제1권, 미국판, 1885년)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분의 계명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모든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음행하는 자나, 여성스러운 자나, 남자와 동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부적절하고 품위 없는 일을 행하는 자들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같은 책, 제5장)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과 주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한 선지자들이 행한 대로, 경외심과 모든 경건함으로 그분을 섬기자. (같은 책, 제6장)

신약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폴리카르포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음 내용 또한 폴리카르포가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권면을 들으라. 나는 주교들이 함께 계셨을 때 너희에게 간곡히 당부했으니, 이제 다시 너희 모두에게 주님의 길에서 품위 있고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노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다시 *준비하라*. *너희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날 그분의 재림, 불로 이루어질 큰 심판, 영생, 그분의 불멸의 왕국을 명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영감 받은 성경을 탐구할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성령의 붓으로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 계명들이 너희 안에
지워지지 않고 머물게 하라.’ (『폴리카르포의 생애』, 제24장.
J. B. 라이트풋, 『사도적 교부들』, 제3.2권, 1889년, 488-506쪽)

서기 170년경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였던 사르디스의 멜리토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실제로 율법은 복음 안에서 드러났으니, 곧 옛 것이 새 것
안에서, 둘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또한
계명은 은혜 안에서, 예표는 완성된 것 안에서, 어린 양은 아들
안에서, 양은 사람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해명이자 그

성취가 되었으며, 교회는 진리의 보물창고가 되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폭정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멜리토. 『유월절에 관한 설교』. 7, 40, 68절. 『
Kerux: The Journal of Online Theology』에서 번역.
<http://www.kerux.com/documents/KeruxV4N1A1.asp>)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현재의 기독교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2세기 중후반의 또 다른 저작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중 누구도 더 이상 위선을 부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나아오라. (로마의 클레멘트. 『인정록』, 제10권, 제45장. 『니케아 공의회 이전 교부들』 제8권에서 발췌. 알렉산더 로버츠 & 제임스 도널드슨 편집. 미국판, 1886년)

또한, 비록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쓴 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로버츠와 도널드슨이 번역한 2세기 중반의 저작인 『헤르마스의 묵자』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14번 등장한다.

2세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단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했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성인 이레네우스조차도 부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기 180년경 그가 쓴 다음 내용을 주목하라:

믿는 자들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분께서 주신 성령이 그들 안에 끊임없이 거하시며, 받는 자가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인내로 행할 때 그 성령을 간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영혼은 부활을 경험하는데, 육신이 다시 영혼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일으켜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 이레네우스, 리옹 주교. 아르미티지 로빈슨이 아르메니아어에서 번역. 『사도적 설교의 증명』, 제42장. 웰스, 서머셋, 1879년 10월. 『기독교 지식 증진 협회』에서 출판됨. 뉴욕: 맥밀런 사, 1920년)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언급할 뿐이다. 내가 그분을 ‘왕국’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그분이 그를 태초부터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를 신으로 만드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그분은 그를 불멸의 존재로도, 또한 필멸의 존재로도 만드시지 않으셨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둘 다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불멸의 길로 향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불멸을 상으로 받아 신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테오�필루스, 『오토리쿠스에게』 1:3, 2:27)

3세기 초, 로마 가톨릭의 성인 히폴리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하늘의 왕을 알았던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너희는 신성의 동반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정욕이나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질병으로 인해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겪은 모든 고난은, 너희가 필멸의 육신을 지냈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지만, 신께서 베풀기에 합당한 모든 것은, 너희가 신성화되어 불멸의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히폴리투스, 『모든 이단의 반박』, 제10권, 제30장)

인류의 목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성화되는 것(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편 82:6 참조)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초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었다(ccog.org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초기 가톨릭 교회의』](#)

[신앙: 소수의 남은 자들이 사도적 계승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제목의 전자책도 참조).

2세기와 3세기의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 교리가 널리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율법을 반대하는 배교자 지도자가 등장했다. 마르키온은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전파했다. 비록 폴리카르포와 다른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꽤 오랫동안 로마 교회와 접촉해 왔으며 로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세기와 3세기에 우화주의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이집트)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많은 우화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교리에 반대했다. 그 우화주의자들에 대한 다음 보고를 주목해 보라:

디오니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귀족이자 부유한 이교도 가문에서 태어나 그들의 철학을 배웠다. 그는 이교도 학교를 떠나 오리겐의 제자가 되었으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의 책임자로 오리겐의 뒤를 이었다...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영지주의 학파는 기상천외하고 우화적인 해석을 통해 거룩한 계시의 교리를 타락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우화주의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네포스는 공개적으로 우화주의자들과 대립하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오니시우스는 네포스의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그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했다. 이는 현재 교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첫 번째 언급이다...

네포스는 천국이 우화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 주님의 문자 그대로의 임박한 왕국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질책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미 도래한 왕국에 대한 개념은, 제국의 주교들이 왕좌의 소유자로 간주되기 한 세기 전인 서기 200년부터 250년 사이, 이집트의 영지주의적 우화 해석 학파에서 구상되고 제시된 것이었다...

클레멘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적(정신적) 지식의 상태로 이해했다. 오리겐은 이를 성경의 명백한 문자에 숨겨진 영적 의미로 제시했다. (워드, 헨리 다나. 『왕국의 복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 왕국, 죽은 자의 부활과 만물의 회복에 관한 복음』. 클랙스톤, 렘센 & 하펠핑거 출판, 1870년, 124-125쪽)

따라서 네포스 주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우화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문자적 해석보다 덜 문자적인, 그릇된 해석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 히에라폴리스의 아폴리나리스 주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우화주의자들의 오류에 맞서 싸우려 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으로 속한 이들은 역사를 통틀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진리를 옹호해 왔다.

허버트 W. 암스트롱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하나님의 교회(요한계시록 3:7-13)의 현대 빌라델비아 시대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고(故) 허버트 W.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듣기 좋은 진부한 말—사람들의 마음에 깃든 아름다운 감정—으로만 여겨져, 허공에 떠 있는 비현실적인 ‘무(無)’로 전락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가 바로 그 나라라고 잘못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하는 나라—지상의 문자 그대로의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여기서는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부서지기 쉬운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 및 17장과 연결해 보면, 이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2은 그것이 (계 17:8) 옛 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열 왕 또는 열 왕국의 연합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계 19:11-16),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분의

왕국—하나님의 나라—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현재의 정부들—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까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은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정부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의 정부라는 사실을 완전히 분명히 보여줍니다. 칼데아 제국이 왕국이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왕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정부입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의 통치권을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통치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

1,900여 년 전 성지의 산과 골짜기,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어나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흘 밤낮이 지난 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마 12:40; 행 2:32; 고전 15:3-4).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즉 우주 정부의 본부로 승천하셨습니다(사도행전 1:9-11; 히브리서 1:3; 8:1; 10:12; 요한계시록 3:21).

그분은 비유에 나오는 “귀인”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실 분입니다(누가복음 19:12-27).

또한, 그분은 “만물이 회복될 때”(사도행전 3:19-21)가 올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회복이란* 이전의 상태나 조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 평화와 유토피아적 상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계적 혼란과 격화되는 전쟁 및 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인간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세계적 대재앙으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4:22).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분은 신성한 하나님으로서 오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마 24:30; 25:31)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계 19:16)로서 오셔서, 세계 초정부(super-government)를 수립하고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계 19:15; 12:5)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인류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광란적인 황홀감과 열정으로 그분을 환영할까요? 심지어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들조차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 사역자들(고린도후서 11:13-15)에게 속아, 그분이 적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것이다. 교회와 열방은 그분의 재림에 분노할 것이며(계시록 11:15,

11:18), 군대들은 실제로 그분을 파괴하기 위해 싸우려 할 것이다(계시록 17:14)!

각국은 예루살렘을 전선으로 하는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투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스가랴 14:1-2),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는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며(3절),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실 것입니다(계 17:14)! “그 날에 그의 발은 예루살렘 동쪽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감람산에 서리라”(슥 14:4). (암스트롱 H.W. 『시대의 신비』, 1984)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분의 재림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계시록 19:19). 많은 이들이(성경 예언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되, 부분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신비주의자들 때문이기도 하여)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허버트 암스트롱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된 종교—성령께서 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진리를 아는 것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온기! ...

하나님의 참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취하는” 길에서 “주는” 길—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이 지구를 휩쓸 것입니다! (동서)

이 새로운 문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며 사랑에 기반을 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왕국의 참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속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하는 바입니다.

허버트 암스트롱은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가 순종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주는’ 삶의 길, 즉 사랑의 길을 거부해 왔다고 가르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분들 중 일부는 구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네, 그분의 죽음은 신약성경과 허버트 W. 암스트롱이 모두 기록한 복음의 일부입니다.

신약성경은 복음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6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 곧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로마서 1:16).

⁴ 그리하여 흠어진 자들은 각처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였다.⁵ 그 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 ¹²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하자, 그들이 빌립을 믿었고 남녀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았다. ... ²⁵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후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²⁶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 ⁴⁰ 빌립은 아소토스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그곳을 지나가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8:4, 5, 12, 25, 26, 40)

¹⁸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전하였다. (사도행전 17:18)

³⁰ 그 후 바울은 자신이 임대한 집에서 만 2년 동안 머물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³¹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담대함으로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28:30-31)

이 설교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리스-로마 교회들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종종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며(요한복음 3:16-17), 또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에베소서 2:8).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부입니다(사도행전 20:24).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마태복음 5:9)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갈라디아서 6:10 참조).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간 협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하겠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4:21-22). 하나님 없이 인간이 지구를 고치려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복음입니다(시편 127:1).

세상의 많은 이들이 21세기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준(準)종교적인 바빌론식 국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 이래로 규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규탄할 계획인 것입니다. 거의 6,000년 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자신의 복음에 빠지게 한 이래(창세기 3장),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믿어 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빌론식’(요한계시록 17장 및 18장) 세계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럽의 한 군사 지도자(‘북방 왕’이라 불리며, 요한계시록 13:1-10의 ‘짐승’으로도 불림)와 일곱 언덕의 도시(요한계시록 17:9, 18)에서 나온 한 종교 지도자(‘거짓 선지자’라 불리며, ‘최후의 적그리스도’이자 요한계시록 13:11-17의 ‘두 뿔 가진

짐승'으로도 불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인류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 수립이 필요하지만, 21세기에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사탄의 거짓 복음의 다양한 변형들을 계속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14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왕국의 복음이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해진 후에야 비로소 끝이 올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그 “끝”은 바로 “큰 환난”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마태복음 24:21에 그 시작이 명시되어 있음) 세상이 참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는 증거이자 경고입니다(참조: 에스겔 3장; 아모스 3:7).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이방인의 회심(로마서 11:25)과 비이방인의 회심(로마서 9:27)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떠오르는 ‘북방 왕’ 짐승 세력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가 함께 내세우는 견해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타협을 통해 평화를 약속하겠지만, 이는 종말(마태복음 24:14-22)과 멸망(참조: 데살로니가전서 5:3)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원래의 참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유다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한복음 17:17),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와 타협하는 자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고린도후서 6:14-17)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평화와 연합이 존재할 수 있도록 타협을 수반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복음”(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복음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화합 의제를 추진하는 많은 이들에게 거짓 복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들과 관련된 표적과 거짓 기적들(데살로니가후서 2:9) 때문에, 세상의 대다수는 복음의 메시지 대신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할 것입니다(데살로니가후서 2:9-12).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루터교 등 여러 교파가 천년 왕국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천년 왕국의 복음 메시지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짓 복음이라고 잘못 주장할 것입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신실한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요한계시록 3:7-13)은 온 세상에 나아가(마태복음 24:14) 천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특정 세속 지도자들(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포함)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북방 왕국인 ‘짐승’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부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다니엘 11:24, 39)를 파괴할 것이며, 그 직후 아랍/이슬람 연합을 멸망시킬 것(다니엘 11:40-43), 악마들의 도구로 활동할 것(요한계시록 16:13-14),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요한계시록 16:14; 19:19-20)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지지할 것입니다.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요한계시록 3:7-13)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할 것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불러일으키며 마태복음 24:14의 성취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언어로 된) 문서를 준비하고, 웹사이트에 내용을 추가하며, 마태복음 24:14가 다가올 종말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이르게 할 ‘짧은 일’(로마서 9:28 참조)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 지도자들(아마도 유럽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최고 지도자와, 일종의 가톨릭교를 표방할 타협적인 교황이 될 것)은 그러한 선포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지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처음에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사야 10:5-7 참조), 그들과/또는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한 신실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다가올 적그리스도에 관한 극단적인 교리(천년왕국설)를 옹호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과/또는 그들의 추종자들이 빌라델비아의 신실한 성도들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어떤 비난을 퍼붓든, 그것은 박해를 촉발할 것입니다(다니엘 11:29-35; 요한계시록 12:13-15). 이는 또한 종말, 즉 대환난의 시작(마태복음 24:21; 다니엘서 11:39; 참조: 마태복음 24:14-15; 다니엘서 11:31)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실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위한 3년 반의 보호 기간(요한계시록 3:10; 12:14-16)을 가져올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 경제적 협박, 표적, 거짓 기적, 살인 및 기타 압박 수단(요한계시록 13:10-17; 16:14; 다니엘 7:25; 데살로니가후서 2:9-10)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10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에 대한 보복을 행하시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6:10)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비록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들(예: 마태복음 24:4-34; 시편 90:4; 호세아 6:2; 누가복음 21:7-36; 히브리서 1:1-2; 4:4,11; 베드로후서 3:3-8; 데살로니가전서 5:4)에 근거하여,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시기를) 기대하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인류는 모든 생명을 멸절시켜 버릴 것입니다:

21 그때에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을 것이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마태복음 24:21-22)

29 그 날들의 환난이 지나자마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30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³¹ 그분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천사들은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29-31)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²⁰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20)

¹⁴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갑을 입고, ¹⁵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신으며, ¹⁶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실 수 있도록 하라. ¹⁷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검을 잡으십시오. ¹⁸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십시오— ¹⁹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게 말할 능력이 주어져,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소서. ²⁰ 나는 이 복음의 대사로서

죄사슬에 묶여 있으니,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에베소서 6:14-20)

대사란 무엇일까요? *메리엄-웹스터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1: 공식 대사; 특히: 자국 정부나 군주를 대표하는 상주 대표로서, 또는 특별하고 대개는 일시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정부나 군주에게 파견된 최고위급 외교관

2 a: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또는 전령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공식 대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9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10 너희는 한때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때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2:9-10)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거룩한가?

물론 이 세상의 어떤 왕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왕국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1:15).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왕국입니다.

대사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의 직접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www.ccog.org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책 『기독교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지침』도 참조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왜 최선인지 더 잘 깨닫게 되며, 그리하여 그분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⁵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⁶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6)

¹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10)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의 미래적 측면 중 하나는, 그때 아직 육신을 지닌(필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견도록 가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¹⁹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할 것이니, 너희는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시면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²⁰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주시더라도, 너희의 스승들은 다시는 구석으로 밀려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스승들을 보게 되리라. ²¹ 네가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네 뒤에서 “이

길이니, 이 길을 걸으라”는 말을 네 귀가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 30:19-21)

비록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¹² ... 이쯤 되면 너희는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히브리서 5:12)

¹⁵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경외심으로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라. (베드로전서 3:15, KJV)

성경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더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들을 가르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³³ 백성 중에서 분별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라
(다니엘 11:33;)

그러므로 은혜와 지식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베드로후서 3:18)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도행전 1:8).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역할 중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요한계시록 3:7-13)에게는, 이것이 또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중요한 복음 증언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4:14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후, 하나님의 백성은 훼손된 지구를 회복하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12 너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옛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너희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는 ‘틈을 메우는 자’, ‘사람이 거주할 거리를 회복하는 자’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58:12)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의 회복 시기에 사람들이 도시(및 그 밖의 곳)에 더 쉽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으로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왕국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라. 32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8:31-32).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된 희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효과가 입증된 계획, 곧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였습니다(요한계시록 12:9)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합니다(참조, 요한복음 18:37).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이 시대에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²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2)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변화됩니다:

²² 종들아, 육신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듯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²³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처럼 진심으로 하라. ²⁴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상속의 상을 받을 줄을 알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22-24)

²⁸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터이니, 경외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28)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관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히브리서 10:38).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 길”이라고 불렀습니다(사도행전 9:2; 19:9; 24:14, 22).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속아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이는 “가인의 길”이라고 불립니다(유다서 11).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의와 기쁨, 평화의 메시지입니다(로마서 14:17). 올바르게 이해된 예언의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참조: 고린도전서 14:3; 데살로니가전서 4:18), 특히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참조: 누가복음 21:8-36).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영적 풍요와 육체적 축복으로 이끕니다(마가복음 10:29-30). 이것이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록 육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둡니다(로마서 8:5-8).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골로새서 1:23).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해했던 것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6. 그리스-로마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로마 교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측면을 가르친다고 믿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백과사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왕국의 도래, 그 다양한 측면, 정확한 의미,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그분의 설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정도가 워낙 심하여 그분의 설교는 “왕국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조: 골로새서 1:13; 데살로니가전서 2:12; 요한계시록 1:6, 9; 5:10 등... 이는 신성한 제도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Pope, H. ‘하나님의 나라’. 『가톨릭 백과사전』 제8권. 1910)

비록 위에서 “골로새서 1:13; 데살로니가전서 2:12; 요한계시록 1:6, 9; 5:10”을 언급했지만,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 어느 구절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임을 가르치거나,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갈라디아서 1:3-9).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14:6). 베드로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름은 오직 이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사도행전 4:12).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사도행전 2:38).

이와 대조적으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 없이도 무신론자들이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그와 일부 그리스-로마계 인사들은 성경에 없는 ‘마리아’의 모습이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화합의 열쇠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슬프게도, 그들과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중요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 복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²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골로새서 3:2)

⁷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7)

그러나 교황 비오 11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 가톨릭 교회는 ...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비오 11세의 회칙 『*Quas Primas*』).

‘CatholicBible101’ 웹사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베드로가 이끄는 그분의 교회, 즉 가톨릭 교회의 형태로 지상에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로마 교회도 아닙니다. 그 왕국이 올 때, 그것은 지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마태복음 16:19), 어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버린” 자들입니다(누가복음 11:52).

로마 가톨릭 교회는 머지않아 도래할 지상의 천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가톨릭 교회*/ 공식 *교리*/ 문답에 나열된 유일한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되고 있다:

676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만 역사 너머에서 실현될 수 있는 메시아적 희망을 역사 안에서 실현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기만은 이미 세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교회는 천년왕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왕국을 왜곡하는 이러한 허위 주장을, 그 형태가 다소 수정된 경우조차도 거부해 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임프리마투르 포테스트 +요셉 라칭거 추기경. 더블데이, 뉴욕 1995, 194쪽)

안타깝게도, 그 입장에 동의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끔찍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다니엘 7:25; 11:30-36).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라:

21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1-23)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자기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데살로니가후서 2:7)고 언급했습니다. 이 불법은 또한 성경이 말세에 대해 경고하는 “큰 바빌론의 비밀”(요한계시록 17:3-5)이라고 불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의 십계명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믿거나, 그 법에 대해 용납될 만한 예외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용납될 만한 속죄의 방식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도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기독교의 형태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의 전통 덕분에 그것이 용납된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태도를 단호히 비난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3-9)! 이사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율법에 반역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이사야 30:9). 슬프게도, 이러한 불법적인 반역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군사적 성격을 띤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화합 의제가 평화를 가져오고, 성경에 없는 형태의 지상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다가올 에큐메니컬 연합에 대해 경고하며, 그것이 몇 년간은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참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승인한 번역본인 『*신/예루살렘 성경*』 이 인용됨):

4 그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 앞에 엎드렸고, 짐승 앞에도 엎드려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비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5 짐승은 42개월 동안 자량과 모독을 내뱉으며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6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 하늘의 성막, 그리고 그곳에 피난한 모든 자들을 향해 모독을 퍼부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았다; 8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창세 이래로 희생의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을 숭배할 것이다.⁹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를 기울이라: ¹⁰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되고,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3:4-10, NJB)

성경은 말세의 바빌론 연합에 대해 경고합니다:

¹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물가에 왕좌를 둔 그 큰 창녀가 받을 형벌을 보여 주리라. ² 땅의 모든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저질렀으며, 그녀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다.’³ 그가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려가니, 거기서 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짐승의 온몸에는 신성모독적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⁴ 그 여인은 자줏빛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역겨운 더러움으로 가득 찬 금 잔을 들고 있었다; ⁵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땅 위의 모든 창녀와 모든 더러운 행위의 어머니’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⁶ 나는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로 취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를 보자 나는 완전히 당혹스러워졌다. (요한계시록 17:1-6, NJB)

⁹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언덕**이다.....¹⁸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큰 도시**이다.’ (요한계시록 17:9, 18, NJB)

¹ 그 후,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으며, 땅이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²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으니, 이제 마귀들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러운 영과 추악하고 역겨운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³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땅의 모든 왕이 그녀와 음행을 저질렀고, 모든 상인은 그녀의 방탕함으로 인해 부유해졌다.’ ⁴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듣기론 이렇게 말하더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에 연루되지 않고, 그녀와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⁵ 그녀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니, 그녀가 남들에게 행한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라. ⁶ 그녀는 자신이 착취한 것의 두 배를 갚아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섞은 독주를 두 배로 농축된 잔으로 마셔야 할 것이다. ⁷ 그녀의 모든 호화로운 향연과 방탕한 잔치마다 그에 상응하는 고문이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나는 여왕으로 등극했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⁸ 그러니 단 하루 만에 재앙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니, 곧 질병과 애도, 기근이다. 그녀는 완전히 불타 버릴 것이다. 그녀를 정죄하신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⁹ ‘그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그녀와 방탕한 잔치를 벌였던 땅의 왕들이 그녀를 위해 애도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1-9, NJB)

스가랴서에서 성경은 다가올 바빌론을 경고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¹⁰ “조심하라! 조심하라! 북쪽 땅에서 도망치라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 바람으로 흩어 놓았으니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¹¹ “조심하라! **바빌론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시온아, 지금 당장 도망치라!”**

¹²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영광이

나를 보내사 너를 약탈한 열방에 대하여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르시기를. ¹³ 보라,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자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¹⁴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러 오노라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¹⁵ 그 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 너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¹⁶ 여호와께서는 성지(聖地)에서 그분의 몫인 유다를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그분의 택하신 도시로 삼으실 것이다. (스가랴 2:10-16, NJB; KJV/NKJV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들이 스가랴 2:6-12로 나열되어 있음)

특정 사안에 대한 협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엔, 바티칸, 많은 개신교인, 그리고 동방 정교회 지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화합 운동의 일부 측면은 성경에 의해 분명히 정죄받고 있으므로 장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4-5). 많은 에큐메니즘은 요한계시록 6:1-2의 첫 번째 봉인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흰 말을 탄 자”(예수님이 아님)와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3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안에서 하나됨에 이르러,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성숙한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에베소서 4:13, NJB)

이 일치가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대적하여 뭉칠 열방의 연합을 파괴하셔야 할 것이다:

11:15 그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며,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외쳤다. 16 하나님面前 앞에 보좌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들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17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지요, 계시는 분이시며, 계셨던 분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권능을 행사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18 열방이 소란을 피웠으나 이제 주님의 보복이 이루어질 때가 왔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크든

작든 모두 상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15-18, NJB)

19:6 그리고 나는 마치 바다 소리나 우레 같은 큰 포효와 같은, 거대한 군중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도다; . . . 19 그 때 내가 보았더니, 짐승이 땅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싸우려 하고 있었다. 20 그러나 그 짐승은, 짐승을 대신하여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속였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로잡혔다. 이 두 사람은 산 채로 불타는 유황 호수에 던져졌다. 21 그 밖의 모든 자들은 기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다 . . . 20:4 그 후 나는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심판을 내릴 권세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모든 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 우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기를 거절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다. (요한계시록 19:6, 19-21; 20:4, NJB)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여 연합한 세상의 군대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 후에야 그분과 첫 번째 부활의 성도들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고린도후서 11:14-15),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짓 사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7.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하십니다”(시편 147:5).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진정으로 지시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8 “사람아, 주님께서 네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 6:8)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은 인류가 진정으로 기꺼이 해 온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창세기 3:1-6)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출애굽기 20:3-17)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우선순위를 의지하기로 선택해 왔습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5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7 네 눈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잠언 3:5-7)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사탄에게 속아(요한계시록 12:9) 세상의 정욕과 ‘생명의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요한일서 2:16).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종교적 전통과 세속적인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며(참조, 예레미야 10:23), 대다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마태복음 24:21-22 참조).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산상 설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일부를 살펴보십시오:

- ³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임이라. 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⁷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⁹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¹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3-10)

마태가 종종 ‘천국’이라고 부르는(마태복음 13:31 참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마가복음 4:30-31 참조)에서, 이 복된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옳으시다

진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요한일서 4:8, 16),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마가복음 12:29-31; 야고보서 2:8-11). 세상의 길은 이기적이며 죽음으로 끝납니다(로마서 8:6).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¹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²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³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1-3)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입니다(시편 119:172). 그분의 길은 순수합니다(디도서 1:15).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심으로써(예: 마태복음 5:21-28)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5:17).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19)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야고보서 2:17).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며(마태복음 7:21-23), 마땅히 해야 할 대로 그분을 본받지 않습니다(참조: 고린도전서 11:1).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요한일서 3:4, KJV),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로마서 3:23).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참조: 누가복음 3:6), 자비가 심판보다 승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야고보서 2:13).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의 해결책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요한계시록 19:15),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므로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의 사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역사는 인류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⁶ 육신을 따르는 마음은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⁷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⁸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6-8)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며, 회개와 세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로마서 8:9):

²⁶ 형제들아, 너희가 부름받은 것을 보라.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권세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귀한 자도 많지 않다. ²⁷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²⁸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무효로 만드시고, ²⁹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³⁰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으며—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³¹ 이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26-3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며(고린도후서 5:7), 믿음으로(히브리서 11:6) 위를 바라봅니다(골로새서 3:2).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2:14).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조차 이미 교회라는 왕국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신자들은 성사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로마-개신교 신자들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참조: 로마서 8:6-8).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마태복음 6:33)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세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도시들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2 “어떤 귀인이 자기에게 왕국을 받아 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미나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했다. 14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사절단을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¹⁵ “그리하여 그가 왕국을 받고 돌아왔을 때,

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 각자가 장사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¹⁶ 그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미나 하나로 열 미나를 벌었습니다.’ ¹⁷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열 성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¹⁸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미나 한 개로 다섯 미나를 벌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¹⁹ 주인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하였다. “너도 다섯 성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누가복음 19:12-19)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왕국에서 실제 도시들을 다스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내 상은 나와 함께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12).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분께 응답할 자들을 위해 계획(요기 14:15)과 자리(요한복음 14:2)를 마련해 두셨습니다(요한복음 6:44; 요한계시록 17:14).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하며,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초,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는 “군중의 힘(The power of crowds)”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는 인공지능과 크라우드소싱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난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등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확실히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길을 따르지 않는 협력은, 대홍수 이후 인류가 힘을 합쳐 바벨탑을 세우려 했으나 실패했던 때(창세기 11:1-9)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중동과 같은 지역의 문제들(예: 다니엘 9:27a; 데살로니가전서 5:3에 언급된 일시적인 이익이 예상되더라도)은 인간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로마서 14:17).

국제 테러 문제 역시, 예상되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유엔 내에서 미혹당한 자들(참조: 요한계시록 12:9)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참조: 에스겔 21:12)—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11:18).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 낙태, 인체 장기 매매와 같은 문제들은 미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참조: 요한계시록 18:13),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만 해결될 것입니다.

미국, 영국 및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는 국제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하박국 2:6-8에 따른 멸망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무지와 잘못된 교육은 유엔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적 분쟁은 성경에 기록된 참된 예수님과는 별개로 구원을 인정하는 어떤 에큐메니컬·종교 간 운동으로도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야말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분의 재림이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아 문제는 잠재적인 대규모 작물 흉작으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을 기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광범위한 빈곤은 종말의 ‘바빌론’(참조: 요한계시록 18:1-19)으로부터 일시적인 혜택을 받을지라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인류가 이 ‘현재의 악한 시대’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 복음입니다(갈라디아서 1:3-10).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 왕국 단계는 지상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기초로 하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요한계시록 5:10; 20:4-6). 이 왕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포함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이 실제로 교회(로마 가톨릭이든 그 밖의 것이든)라고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천년왕국 교리를 반대해 왔으며,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며, 이는 마태복음 24:14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요한계시록 21:2)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그 성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도, 슬픔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요한도 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신약성경 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설교도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세기 초의 폴리카르포와 멜리토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Continuing Church of God)’도 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마가복음 1:14-15).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설교하신 주제였으며(사도행전 1:3),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마태복음 6:33).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임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간 정부의 종말을 가르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요한계시록 11:15).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마지막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24:14). 그리고 그 전파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지막, 종말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지지하지도,
듣지도,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마태복음 6:13),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7:31).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마태복음 24:14)를 포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8:19-20). 우리가 그 왕국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따르며, 진리를 믿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를 지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

(Continuing Church of God)

The USA mailing address of the *Continuing Church of God* is P.O. Box 109, Grover Beach, California, 93483 USA; website www.cdog.org.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CCOG) 웹사이트

CCOG.ASIA 이 사이트는 아시아에 중점을 둡니다.

CCOG.IN 이 사이트는 인도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COG.EU 이 사이트는 유럽을 대상으로 합니다.

CCOG.NZ 이 사이트는 뉴질랜드 및 영국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COG.ORG 이곳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사, 링크, 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COGCANADA.CA 이 사이트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COGAFRICA.ORG 이 사이트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DLIDD.ES La Continuación de la Iglesia de Dios. 이곳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Continuing Church of God)의 스페인어 웹사이트입니다.

PNIND.PH Patuloy na Iglesia ng Diyos. 이곳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필리핀 웹사이트입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스 및 역사 관련 웹사이트

COGWRITER.COM 이 웹사이트는 주요 전도 도구로, 뉴스, 교리, 역사 관련 기사, 동영상 및 예언 관련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CHURCHHISTORYBOOK.COM 기억하기 쉬운 이 웹사이트에는 교회 역사에 관한 기사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BIBLENEWSPROPHECY.NET 이 사이트는 뉴스와 성경 관련 주제를 다루는 영어 온라인 라디오 웹사이트입니다. BNPI.NET은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설교 및 짧은 설교를 위한 YouTube 및 BitChute 동영상 채널

BibleNewsProphecy 채널. CCOG 짧은 설교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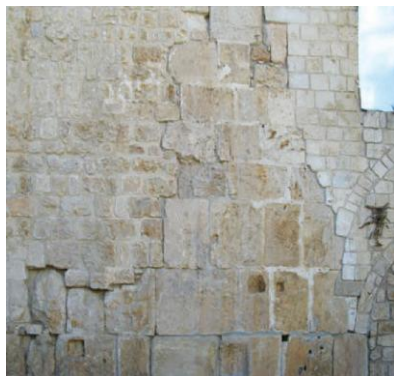
CCOGAFRICA 채널. 아프리카 언어로 된 CCOG 메시지.

기독교 신앙의 여러 측면을 가르치는 **CCOG Animations** 채널.

CDLIDDSermones 채널에는 스페인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ContinuingCOG 채널. CCOG 설교 동영상.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때로는 ‘최후의 만찬실’로 알려져 있지만 ‘예루살렘 서쪽 언덕(현재 시온 산이라 불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건물에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벽돌들(나중에 추가된 벽돌도 일부 포함)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아마도 가장 초기의 진정한 기독교 교회 건물이 세워졌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법한 건물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건물이었습니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이는... 형제들아, 여러분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14)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유다서 3)

그분(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4:43)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작은 양 떼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31-32)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